

한미일 새시대 선언...인도·태평양 핵심협력체 탄생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원칙·공약·정신' 문서 3건 채택

윤 대통령 귀국...두번째 한미일 정상회의 한국 개최 추진

한국과 미국, 일본 정상이 18일(현지시간)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 (New Era)를 선언했다. 대통령실은 20일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 구조를 갖췄다"고 강조했다.

한미일은 '공동 위협에 신속 협의'를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3국 안보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하고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1994년 한미일 정상회의가 처음 개최된 이래 다자회의 계기가 아니라 단독으로 3국 정상이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국 정상은 정상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일 협력의 당위성과 전방위적인 공조 강화 의지를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오늘 우리 세 정상은 '새 시대를 향한 3국 간 협력'의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3국이 힘을 합쳤을 때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3국과 3국 국민의 이익"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 협력이 이득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장기간 지속되는 협력을 통해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 간 전략적 연계의 잠재성을 꽃피우는 것은 저희에게 있어 필연적인 일이고 시대적인 요구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정상은 3국 협력 방향을 명시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 '3자 협의회'에 대한 공약 등 3건의 결과 문서를 채택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섯 문장으로 구성된 '3자 협의회'에 대한 공약이다.

안보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 협의를 명문화한 것으로, 한미일 안보협력 수준이 비정기적인 대북 공조에 머무르던 이전과는 차원이 달라졌다

평가다.

한일관계 부침 속에서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이 별개로 유지되는 한미일 관계는 이로써 더욱 확실한 3자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3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무엇보다 우리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이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밝혔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도 "새롭게 다져진 우정의 연대와 함께,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으로 이어진 우리 각각의 양자 관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우리의 3자 관계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이도은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난 4월 워싱턴선언, 핵협의그룹(NGC) 구성 등에 이어 우리가 필요한 안보를 더 강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문서를 통해 세 나라가 상호 관계를 국제 사회에 공식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세 정상만 따로 모여 정상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제 사회에 주는 메시지 컸다"며 "기존 성명이나 선언, 발표문 대신 원칙, 정신, 공약 등 가치가 부여된 명칭이 문서에 사용된 것도 주목할만하다"고 강조했다.

또 "세 나라가 인공지능(AI), 우주, 양자 등 첨단 분야에서 기술적 인적 교류를 확대해나가기만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 등 직접적인 경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경제 규모가 커지고 산업이 더 고도화되고 실질적인 복지도 향상되는 선순환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한미일 3국이 전 세계 GDP의 31%를 차지하고 있다"며 "다른 어떤 경제 블록, 세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경제력을 갖춘 것"이라며 "세 나라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5G·6G 통신 등 첨단 분야에서 원천 기술, 생산 능력, 소재·부품·장비 등을 포함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 연대를 통한 시너지가 굉장히 크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이어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늘 앞만 보고 달렸는데, 이제 어느덧 돌아보니 우리가 세상의 맨 앞에 서서 미국, 일본 같은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한편으로는 국가적 성취에 자부심을 느끼지만, 국제사회에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그런 시대에 들어왔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한미일 정상회의를 내년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내년에는 서울에서 미일 정상과 함께 만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트위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바이든 대통령께서 역사적인 정상회의를 주최해 감사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다음 3국 정상회의를 주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무한 정쟁 속 주목받는 DJ '통합의 리더십'

여야 14주기 추도식서 "정치 복원" 갈등 격화 민주당에도 결집 메시지

정치권이 무한 정쟁을 반복하면서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통합의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다. 배제와 독단, 증오와 독설이 판을 치는 구조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 나아가 협치를 통해 미래를 열어가는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정쟁에 지친 민심을 고려할 때, 내년 총선을 뒤흔들 화두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지난 18일 열린 DJ 서거 14주기 추도식에서 여야 정치권은 앞다투어 'DJ 정신'을 강조했다. 이날 추도식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자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추도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체의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끝까지 지켰다"며 "김대중의 정치는 통합과 협력의 정치, 화해와 미래로 가는 정치였다. 김대중식 큰 정치가 한없이 그립다"고 토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추모사를 통해 "김 전 대통령은 국익과 국민 통합을 위해선 과거의 어떤 악연도 다 초월하는 결단도 보여줬다"며 "국민의 힘도 김 전 대통령의 발자취를 잘 새기며 큰 정치를 복원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추모사에서 독재정권과 맞서 싸웠던 김 전 대통령의 결기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권의 폭력적 통치가 국민과 나라

를 베풀고 내뿜고 있다"며 "혹독한 고난도 인내하며 투쟁하신 강철 같은 의지를 되새기고, 정권 퇴행에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김 전 대통령의 '통합의 리더십'은 여야 정치권에 시사점이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여권과 검찰은 문재인 정부 정책, 이들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에 나서면서 더욱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민 통합을 통해 미래를 열어가는 리더십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권이 야권보다 정국 운영에 책임이 더 크다는 점에서 아픈 지점이다. 야권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선 패배에도 빠져진 성찰 없이 "졌잖아(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자책 평가에 안주하고 팬덤 정치에 빠져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논총을 받고 있다.

시스템을 바꾸고 인재를 널리 등용, 국민 통합을 꾀하기 보다는 과거 부정의 인적·정책적 단절을 근간으로 하는 '적폐정산'이 반복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상대 진영을 적결해야 하는 악으로 규정함에 따라 강경 세력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치는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영수회담이나 여야 대표 회담이 단 한번도 열리지 않고 있다는 점은 정치 실종의 현실을 극명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극단적 정쟁 구도에 DJ의 '통합의 리더십'은 내년 총선 화두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쟁에 지친 부동층 및 중도층 유입 등 외연 확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국힘, 한미일 회담 성과 띄우기...“3국 협력 새 장 열었다”

국민의힘은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가 3국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켰다며 '성과 띄우기'에 적극 나섰다.

김기현 대표는 20일 페이스북 글에서 "한미일 3국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중추적인 '롤 플레이어'가 아니라 자주적인 '롤 메이커'로 우뚝 서는 결실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 "말로는 '한반도 온전성'이 되겠다고 장담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온전자는커녕 '탐승객' 대우조차 못 받던 부끄러운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북한이 우리를 향한 핵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고, 세계정세가 급변하는 엄중한 시기에 열린 정상회담"이라며 "한미일 3국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켜 우리 외교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위협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최우선인기에 3국의 강력한 안보협력은 시의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3국 협력의 장은 안보뿐 아니라 경제, 과학 기술,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 협력, 보건, 여성 등

모든 문제에 대해 3국이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다"는 포괄적인 협력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일관된 외교적 노력이 빛을 이번 성과를 두고도 '퍼주기식' 운운하며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에 휘둘리는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은 참담하기만 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서는 "윤 대통령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점검, 계획대로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는 일본, 한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그리고 투명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9년
1954-2023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전제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교회)



총장
김경운 박사

2024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학과	수시	정시	
인문사회	신학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사범	유아교육과	7	3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실용음악학 전공)	21	8	
총계		83	22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3. 9. 11(월) ~ 15(금)
· 전형일: 2023. 10. 6(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 3(수) ~ 6(토)
· 전형일: 2024. 1. 19(금)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곳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그대를 기다립니다!
”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증명한다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막지소로 36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3. 9. 11(월) ~ 15(금)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